

KIA 김기훈 “필승조 도약하겠다”

미국서 맞춤형 훈련 받고
제구·자신감 동시에 얻어
한국시리즈 등판 큰 경험

방향 잡은 김기훈이 KIA 타이거즈 ‘필승조’ 도약을 노린다.

KIA는 올 시즌 강력한 불펜의 힘을 앞세워 정규 시즌에 이어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내년 시즌에도 불펜은 KIA 강점으로 꼽힌다. 젊은 불펜이 올 시즌 우승 경험을 더했고, 어느 팀보다 좌완 자원이 풍부하다.

변수는 있다. 불펜에서 가장 많은 73.1이닝을 책임졌던 장현식이 FA를 통해 LG로 이적하면서 ‘이닝 숙제’가 남았다. 좌완 김기훈이 기회의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트레이드 애슬레틱에 다녀온 김기훈은 이곳에서 방향을 잡았다. 체계적으로 매커니즘을 분석하고 맞춤형 훈련을 진행한 김기훈은 폼에 변화를 줬다. 변화구도 세밀하게 다듬었다.

시즌 중반 시도한 변화로 김기훈은 제구와 자신감을 동시에 잡았다.

김기훈은 “미국 가서 운동 방법을 만들어 와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잡생각이 안 들었다. 오로지 만들어 온 것만 생각하면서 하면 되니까 오히려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며 “확실히 내 것을 만든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확실한 방향을 잡은 김기훈은 변화에 집중했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이는 자신감으로 연결됐다.

김기훈은 “예전에는 급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급하게 됐다. 결과가 좋아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좋은 경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올 시즌 성과를 평가했다.

한국시리즈라는 경험도 김기훈에게는 좋은 공부였다. 1경기에 나와 아웃카운트 없이 불넷 하나를 기록하는 데 그쳤지만, 그 경험도 김기훈에게는 소중한 자산이었다.

김기훈은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들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엔트리에 들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들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던 대로 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한국시리즈의 몰입감, 분위기가 저에게 달랐다. 눈으로 막상 보니까 그 무대에서 잘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국시리즈 경험을 이야기했다.

변화의 시즌을 통해 경험까지 더한 김기훈은 지난 11월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 ‘시간과 싸움’을 했다.



시즌 중반 미국 트레이드 애슬레틱을 찾아 방향성을 잡은 좌완 김기훈이 장현식이 빠진 KIA 타이거즈 불펜에서 필승조를 노린다.

〈KIA 타이거즈 제공〉

김기훈은 “세트 포지션을 빠르게 하려고 노력했다. 시즌에 타이밍이 길어서 빠른 주자들이 도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 초를 재면 다른 투수보다 느리기도 했고, 코치님들도 빠른 주자가 나가면 쉽게 될 수 있다고 하셨다”며 “시즌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마무리 캠프에서 이 부분을 신경

썼고, 초도 더 빨라졌다”고 이야기했다. 김기훈은 마무리캠프를 치르면서 ‘슬라이더’에도 집중했다. 김기훈은 “회전이 풀리기도 해서, 회전도 늘리고 직구 궤도에서 예리하게 가는 슬라이더를 생각했다”며 “슬라이더는 계속 연습했고, 앞으로도 계속

속 가다듬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확실한 목표 아래 성공적인 캠프를 치른 김기훈은 스토브리그를 잘 보내고 2025시즌 필승조 경쟁에 뛰어들 생각이다. 김기훈은 “올해 미국에서 만들어왔던 것 비시즌에 몸에 더 적응되게 하려고 한다. 만들어왔던 루틴

충실하게 하면서 몸에 적응 잘 되게 훈련하겠다”며 “한국시리즈에서 아쉬운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눈으로 보고 배운 것도 많다. 배운 것을 토대로 더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숨겨버려 달랠려던 2024시즌 K리그가 ‘한자리 변화’로 마무리됐다.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올 시즌 K리그 마지막 경기인 전북현대와 서울이랜드의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이 진행됐다.

전북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2(ACL2) 일정으로 뒤늦게 치러진 승강PO 2차전에서, 전북은 티아고와 문선민의 골로 2-1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1일 서울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치른 1차전에서 2-1 승리를 거뒀던 전북은 1-2차전 합계 4-2를 기록하면서 창단 첫 강등 위기를 모면했다.

올 시즌 부진을 이어가면서 1994년 창단 이후 처음 강등권으로 추락한 전북은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벼랑 끝 승부를 펼쳤고, 티아고의 활약으로

전북, 창단 첫 강등 위기 면했다

K리그2 서울E와 승강 PO 2차전 2-1 역전승

생존에 성공했다.

1차전에서 선제골을 장식했던 티아고는 2차전에서도 득점에 성공했다.

티아고는 0-1로 뒤진 후반 4분 김진규의 크로스를 머리로 연결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전북은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문선민의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만들면서 잔류를 자축했다.

전북의 생존으로 2025시즌 K리그 구성이 완료됐다. 치열한 싸움 끝에 ‘한 자리’에만 변화가 생겼다.

인천유나이티드와 FC안양만 자리를 바꿨다. ‘생존왕’으로 명성을 떨쳐왔던 인천은 9승 12무 17패(승점 39)의 성적표를 작성하면서 K리그 최하위로 다이렉트 강등됐다. 대신 안양이 18승 9무 9패(승점 63)의 성적으로 K리그2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면서, ‘K리그2 우승팀’ 자격으로 2013년 창단 이후 처음 K리그1 입성에 성공했다. 이어 승강플레이오프를 통해 ‘강등과 승격’을 놓고 힘겨투기가 전개됐다.

전북과 대구FC가 각각 10위와 11위로 리그 일정을 마치면서 승강PO를 치르게 됐다.

전북은 K리그2 플레이오프를 통해 승강PO 티켓을 차지한 서울이랜드, 대구는 K리그2 2위 충남아산을 상대로 마지막 승부를 펼쳤다.

그리고 대구가 지난 1일 열린 승강PO 2차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3-1 승리를 거두면서, 합계 스코어 6-5로 잔류에 성공했다. 이어 전북도 서울이랜드의 기세를 막으면서 K리그1 자리를 지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삼성, 오승환 잡는다 보호선수에 포함



프로야구삼성라이온즈의 살아있는 전설, 오승환(42·시진)은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지 않는다.

삼성은 오승환을 자유계약선수(FA) 최원태 영입에 따른 20인 보호선수 명단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종열 삼성 단장은 8일 “오승환을 보호선수 명단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최종 결정은 (구단) 대표님께서 하시겠지만, 오승환은 우리와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오승환은 올 시즌에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오승환이 가진 상징성과 기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보호선수 명단에 넣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지난 6일 FA 최원태를 계약기간 4년, 총액 70억원에 영입했다. 최원태는 FA A등급이라서 보호선수 20명 외 1명과 전년도 연봉 200%(8억원) 혹은 전년도 연봉 300%(12억원)를 원소속팀인 LG에 보상해야 한다.

삼성은 20명의 보호선수 명단을 짜서 LG에 보내고, LG는 보호선수 명단을 살펴본 뒤 보상 선수 선택 여부를 결정한다.

초미의 관심사는 오승환의 20인 보호선수 명단 포함 여부였다.

2005년 삼성에서 데뷔한 오승환은 실명이 필요 없는 프랜차이즈 스타다. 그는 마무리 투수와 관련된 수많은 기록을 세우며 KBO리그 역사를 썼다. 은퇴한다면 영구결번 지정이 유력하다.

2024시즌에도 7월까지 2승 6패 26세이브 평균자책점 3.98의 성적을 내며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다. 다만 8월 이후 체력 문제를 노출했고, 포스트시즌 엔트리에서 탈락하는 등 고배를 마셨다. /연합뉴스

박지성, 전북 추락의 ‘주역’?

2021년 ‘어드바이저’로 인...선수 영입·감독 선임 관여



그런데 2020년대 들어 전북은 고위층의 변화 속에 질보단 ‘양’ 위주로 이적시장에 임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결과적으로 선수단 규모는 비대해졌고 경기력에서는 ‘돈값’을 못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북이 지급한 선수 연봉 총액은 198억

제가 있었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이적시장에서 양보다는 ‘질’을 택했던 구단이다. 국가대표급 수준의 선수를 과감하게 수혈하면서 선수단 규모는 최대한 ‘컴팩트’하게 꾸렸다.

767만7000원으로 K리그1 12개 구단 중 가장 높았다.

마구잡이 영입으로 연봉 액수가 실제 성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면서 선수들의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구심점 노릇을 하던 베테랑 선수 다수가 경기력이 하락하거나 다른 팀으로 떠나면서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했다. 올 시즌 전북 선수들이 파벌을 지어 ‘끼리끼리’ 논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7월엔 국가대표 출신의 베테랑 포백 김진수가 시즌 중 음주로 내부 징계를 받고 주장 완장을 내려놓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진수는 전북 최고 연봉(14억원)을 받는다.

구단이 시즌 초 경질한 단 페트레스쿠 감독 후임으로 김두현 감독을 데려온 것 역시 결과만 놓고 보면 아쉬운 선택이라 할 만하다.

42세로 구단 최연소 사령탑인 김 감독이 시즌 도중에 부임해 ‘머리 굵은’ 선수가 즐비한 전북 라커룸을 빠르게 장악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거로 보인다.

누적된 슬한 문제가 불거 터지는 과정에서 박지성 고문이 대체 될 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1년 ‘어드바이저’라는 알송달송한 직책으로 전북과 연을 맺은 박 고문은 2022년부터는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아 선수 영입, 감독 선임에 깊숙이 관여했다. 특히 그는 전북 사상 최악의 감독으로 평가되는 페트레스쿠 감독을 데려왔다.

박 고문은 올해 8월 테크니컬 디렉터에서 고문으로 한발 물러났다.

전북 추락의 주역이라 할 만한 박 고문은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기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으나 축구계 안팎에선 그를 ‘잠룡’으로 분류한다. 박 고문은 축구 예능 프로그램 ‘슈팅스타’에서 FC슈팅스타 단장으로도 활약하는 등 공사다방한 모습이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문제가 끊어 터질 대로 터진 전북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절대 1장’으로 군림하던 전북 현대가 사상 최악의 시즌을 강등의 벼랑 끝에서 마쳤다.

전북은 8일 끝난 서울이랜드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 합계 4-2로 승리하며 K리그2(2부) 강등 위기를 모면했다.

잔류에 겨우 성공했지만 리그를 선도하던 명가로서 부끄러운 성적을 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전북은 정규리그를 10위로 마쳤다. 2012년 스피릿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구단 역대 최저 순위다.

전북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진 것은 몇 년간의 실책이 쌓이고 쌓인 결과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K리그1 5연패를 이룬 전북의 ‘이상 징후’는 주재 모라이스 감독이 이끈 2019~2020년에 감지됐다.

모라이스 체제에서 전북은 좋은 성적을 냈으나 ‘리빌딩’에 소홀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한 선수를 지속해서 영입해야 했지만, 최강희 감독 체제의 유산으로 상당한 시간을 버텼다.

이런 흐름은 김상식 감독이 배턴을 넘겨받은 2021년에도 이어졌다. 구단은 뒤늦게 세대교체에 속도를 냈으나 이번엔 선수단 구성의 방향성에 문